고려신학보 제11집 (1985. 겨울) PP. 48~71

M. Luther와 U. Zwingli의 성만찬 논쟁

이 상 규

시작하는 말

종교개혁 당시 성만찬 문제는 루터(M.Luther,1483~1546)와 쯔윙글리(U. Zwingli 1484~1531) 사이에 심각한 견해차를 보였던 중요한 신학적 주제였으며 종교개혁운동의 전개 과정에 있어서 최대의 신학적 논쟁이었다. 이 논쟁의 전개과정을 통해 독일의 개혁자와 스위스 개혁자들 사이의 신학적 견해차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갔고, 특히 1529년 마부르그 논쟁(Marburg colloquy)을 정리하면서 저들의 성만찬 이해는 좁힐 수 없는 심연의 깊이를 더해 갔던 일은 잘 알려진 일이다. 결국 성만찬이해에 관한 양자의 교리적 입장을 중재하려는 노력이 좌절되므로 독일의 루터란(Lutheran)과 스위스 개혁파간의 개혁운동의 연합은 좌절되고 교파적 차이는 영구화되어 갔던 것이다.

루터와 쯔윙글리 탄생 500주년을 맞은 1984년 이래로 유럽 여러나라에서는 이들 개혁자들에 대한 추모, 연구모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이 때에 두 개혁자간의 첨예화됐던 성만찬 논쟁을 추적하고 새롭게 정리해 보는 일은 여러가지로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본고는 1529년 마부르그 논쟁이 있기까지의 배경과 두 개혁자간의 논쟁의 전개과정, 그리고 1529년 마부르그 논쟁에서 명백하게 제시된 성만찬 견해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1529년 당시는 종교개혁운동에 있어서 일대 위기였다. 프랑스와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교황 클레멘트 Ⅶ세(clement Ⅶ)와 화해한 황제는 1529년에 독일 내정에 간섭할 수 있게 되었다.

그해에 모였던 슈파이에르 국회(Diet of Speier)는 루터파의 확산에 놀라 루터파의 진전을 금하고 로마의 감독권 회복을 명하였다. 소수 루터파의 항의는 역부족이었다. 이 위급한 상태에서 루터를 지지하는 제후들 가운데서 지도자였던 헷세지방의 필립(Philip of Hesse)공은 독일과 스위스 복음주의 세력의 공수동맹을 시도했던 것이다. 독일과 스위스 양파, 곧 루터파와 쯔윙글리파는 거의 모든 교의에 견해를 갖이 했으나 성찬에 관한 교리에서는 견해차가 분명했다. 이 양파의 신학적, 교리적 차이를 좁히고 조정을 바란 필립공은 1529년 10월 1일 루터파와 쯔윙글리파를 자기의 성(Marburg)에 초청하여 회담케 했던 바, 이것이 바로 '마부르그 논쟁'이며, 이 회담을 통해 양자의 성찬관의 차이는 분명해졌다. 본고는 마부르그논쟁을 전후한 루터와 쯔윙글리의 논쟁을 추적하므로 양자의 성만찬 신학을 보다 분명히 이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루터와쯔윙글리의 성만찬교리의 형성

루터와 쯔윙글리는 동일한 표어, 곧 종교개혁의 이념으로 출발했으나 각기 복음의 이해가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해지기 시작했다. 신앙고백상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성만찬견해는 그 차이가 명백했다. 그 차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양자의 성만찬신학의 형성 과정

을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것 같다.

1. 루터의 성찬론

루터의 성찬교리는 처음부터 확고한 견해를 가진 것은 아니였다.[1] 그의 성만찬에 관한 이론은 대략 3시기를 거치면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첫 시기는 1519년 '성찬에 관하여'를 썼을 때 까지요, 둘째 시기는 1520년 부터 1529년 까지, 곧 종교개혁의 3대 작품중의 하나이자 성만찬에 관한 견해를 보여 주는 '교회의바벨론 감금' (Von babylonischen Getaengnis der Kirche)를 썼을때 부터 마부르그 논쟁때까지 이며, 세번째 시기는 마부르그논쟁이후 루터 자신의 신학형성과 더불어 구체화된 시기이다.[2]

루터는 1519년 한편의 시편강해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원형" 이란 개념으로 주의 성찬의 상징적 의미를 가르쳤고, 다른 한편 "참된 그리스도의 몸된 성례전과 형제의 사귐에 관한 설교" (Ein Sermon von der hochw. Sacrament des Leichnams Christi und von den Bruderschaften, 1599)에서 화체설적으로 가르쳤다. 즉 루터는 "그의참된 자연적 살이 떡속에 있다" 왜냐하면 "떡이 그의 참된 자연적 몸으로 변하고, 포도주가 그의 참된 자연적 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3] 라고 했다. 또 "떡이 어떻게 남아 있으며 그것이 어느 때 그리스도의 몸

1) 전경연, **루터신학의 제문제**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74), p. 76
2) 루터의 성찬교리 형성에 관해서는 Walther Koeher의 *Das Marburg Religionsgespraech* (1529)와 M. Heinsius의 *Nachfolge Eger und Sievers* (1929)이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3) *Weimarer Ausgabe* (Weimar Edition of Luther's Works. 이하에서는 W로 표시함) Ⅱ. S. 749

으로 변화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에서 루터는 이 화체(化体)의 '불가사의함'을 말 했던 것이다.[4]

그런데 다음해(1520)에 쓴 '교회의 바벨론감금' 에서는 화체설적 견해를 포기하였다. 그는 화체설(성체 변질론, transubstatio)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영향받은 토마스주의의 그릇된 개념으로 보았기 때문이며, 화체설적 이해를 견지하는 것은 토마스주의로 복귀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루터는 이제 다이(D'Ailli)에 호소하여 둔스스코투스 이래로 유행된 신학사상을 택하고 있는데, 그것은 떡의 실체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동시에 전달된다는 사상[5], 곧 공재설(共在説 consubstantiation)을 주장하게 되었다. 즉 떡과 포도주는 "그 아래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재하는" 표징들로 보아[6] 그리스도의 몸의 편재성을 주장하였다. 즉 떡과 포도주는 물질이며 상대적 요소이지만 떡과 포도주 아래(under), 떡과 포도주와 더불어(with)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살과 피가 임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보이지는 않으나 그 본질을 이루고 있다. 그는 이 떡과 포도주와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신비스런 관계를 해명하기 위하여 그는 '가열한 철' (ferrumignitum)이란 비유를 든다. 즉 철과 열은 별개의 것이지만 일치가 되면 특수한 존재가 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유를 드나 그 '공재'가 어떤 모양으로 실현되는 지는 아직 설명하지 않는다.

그런데 1522년에 이르러 루터는 그의 성만찬 이해에 있어서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는 一群의 보헤미아 형제단들을 통해 깨우침

4) Reinhold Seeberg, **기독교교리사** 김영배 역(서울 : 도서출판엠마오, 1985), p. 395 이와같은 루터의 견해에 대해 R. Seeberg는 문자적으로는 화체설적 입장이 견지되고 있지만 실제로 루터는 몸이 떡 '속에' 존재한다는 사상을 고정시키는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변호하고 있다.
5) W. 6. 508, *Erlangen Ausgabe* (Erlangen Edition of Luther's Works. 이하에서는 E로 표시함), 28. S. 366ff.
6) W. 6. 365, W. 8. 440, E. 29. 336.

을 받은 것인데 그것은 저들이 떡과 포도주를 단순히 상징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그와 동시에 네델란드 출신의 내과 의사였으며 인문주의자였던 코넬리우스 호니우스(Cornellius Honius)로 부터 서신을 받았는데 그는 성만찬 제정의 말씀 곧 "이것은 내 몸이다"(Hoc est corpus meun)의 est는 significat라는 단어와 동등한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가르쳐 주었다.

또 이 때 칼쉬타트(carlstadt)는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나타났다. 즉 그는 성만찬 제정의 말씀들 가운데 '이것은' (마 26 : 26, 고전11 : 24) 그리스도의 몸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나를 기념하여 받아 먹으라' (고전 11 : 24, 25)는 것은 떡을 언급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안들이 루터에게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했다.

성만찬 요소들에 대한 몸의 관계와 성만찬 제정의 말씀들의 주석은 깊은 주의를 요한다. 이 때부터 루터는 성경 말씀들에 대한 단순한 신봉을 요구하게 된다.[7] 그래서 루터는 호니우스에게 답하기를 자기 역시 상징적 해석방법에 마음이 끌리지 않는 바는 아니나 성경에 분명히 "이것은 나의 몸이라"하고 아무런 수사법 사용의 암시도 없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고 답변 하였다. 그래서 루터는 성경이 est라고 말씀할 때 그 문자적 의미를 감히 '상징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지 못한다고 하였다.[8]

루터는 자기가 저술한 요리문답 가운데 어거스틴을 본받아 성만찬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말씀이 예품에 임하여 이를 성만찬으로 만든다" (The word comes to the element and make of it a sacrament)

7) E. 28, 412f.:29, 329, 321, 216, 331. 참고. 그래서 루터는 "성경은 잘못을 범할수 없다" (Die Schrift Kann nicht irren) 혹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하다" (Verbum Dei infallibile)는 말을 종종 하였음을 볼 수 있다.

8) E. 28. 393, 396, 398.

루터는 가르치기를, 우리는 마치 복음의 설교와 마찬가지로 또한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의 혜택을 입으며, 이를 통해 인간들의 마음이 더욱 강건해지는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진실로 성찬속에 함께 하시며, 이러한 그리스도의 실제적 임재는 그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 후에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무소부재성 뿐만이 아니라, 성찬예식을 수립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약속에 근거하여 확실히 보장받은 사실이라는 것이었다. (Christ is truly present in the Sacrament, and his real presence is assured not only by his ubiguity, since the glorified Christ is not limited by spatial dimentions, but also by virtue of his express promise in the institution of the Sacrament)

그리스도가 소유하는 신성과 인성, 양속성의 상호 교류와 마치 쯔윙글리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물질비하의 개념들이 루터가 제시한 정의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 루터가 물론 성경의 구절들에 의해 좌우되기는 하였으나, 단순한 문자주의자는 아니었음을 느낄 수 있다[9]

이상에서 언급한 루터의 공재설이 형성하게된 계기를 간명하게 정리하면,

㉠ 하나님의 전능은 행동(Presence)한다는 확신 ㉡ 성만찬에서 가현론적 사실이나 감각적 사물이 아니고 역사적 실제적 그리스도를 가질려는 의식(그리스도는 성찬중에 본질적으로 인격적으로 현존한다는 것을 믿었다. 물론 화체설과 같이 본질적으로 그 물질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는 것은 아니다). . ㉢ 이성주의 거짓교사나 열광주의자들의 이해에 반대하기 위한 의식적 강조로 정리할 수 있다. 루터는 그후 칼슈탓트와의 논쟁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편재성의 교리를 강

9) Lewis W. Stitz, 종교개혁사, 서영일 譯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1983), p. 158.

하게 주장하였던 것이다.[10] 그러나 칼슈탓트는 현실임재를 부인하였다.

루터는 성찬론의 적극적인 공헌은 하나님의 말씀의 객관성을 강조한 것과 수직적인 위로 부터 사고를 시작하는 그의 태도라고 하겠다.

그래서 1529년까지의 루터의 성찬교리는 공재설과 그의 기독론의 전거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의 편재설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 그리스도의 '공재(임재)'의 방법의 문제가 뚜렷해 지게 되자 그는 그것에 보다 크고 독립된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몸이 원래 성례의 은사를 실현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음에 반하여 그것이 나중에는 은사 그 자체도 생각하게 된다.

2. 쯔윙글리의 성찬론

루터가 수도원에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찾고 있을때인 1506 년 말에 울리히 쯔윙글리는 글라우스(Glarus)에서 목사가 되었다. 그의 생애는 그리 길지않았으나 파란만장했다.

루터가 자신의 심령의 종교적 갈급과 당시의 종교적 상황에서의 구원을 향한 고뇌가 개혁자로서의 자기발견의 계기였지만 쯔윙글리는 아주 순수한 원전들로 돌아가고자하는 에라스무스적 권고와 당대의 인본주의적 경향에서 출발하였다. 그래서 쯔윙글리는 에라스무스(Erasmus), 왈프린(H, Walflin), 비텐바하(Thomas Wyttenbach) 등과 같은 인본주의자들로부터 적지않은 영향을 받았다. 루터가 독일에서 복음주의적 개혁운동을 전개하고있을 무렵, 쯔윙글리는 쮸리히(Zürich)시를 중심으로 종교개혁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쯔윙글리는 1523년에 말하기를 "나는 루터의 이름을 듣기도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고 하여 루터와의 사상적 교류 관계에 앞

10) E. G. Schwiebert, *Luther and His Times*, pp. 695-714. 참고

서 독자적으로 개혁운동을 시작했음을 주장했다. 사실 이 주장은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초기에 이해한 기독교복음이란 에라스무스적인 그리스도중심적 사랑의 윤리, 즉 "그리스도의 철학"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후에 루터의 영향아래 바울서신들을 연구하던 쮸리히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는 주제를 "그리스도의 법"(law of Christ), 혹은"고등기독론"(higher Christology)으로 옮겨갔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그리스도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구원의 온전하고 최종적인 선물에 관해 열정적으로 설교하게되었다. 이와같은 복음, 참으로 '복스러운 소식(good news)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 이면에는 루터의 영향이 컸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11] 이 사실은 쯔윙글리가 루터의 저서들에 이미 정통했다는것뿐만 아니라 그의 교리적 저서들의 형식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나고있다. 즉 그러한 증거들이 쯔윙글리의 저서 「Schlussreden」과 「Uslegung」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이다. 아마도 1518년 말기에는 쯔윙글리가 루터의 저술들에 대해 익히 알고있었을 것이며, 이들을 탐독한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1523년 쯔윙글리는 자기 스스로의 독창성을 주장하면서, 루터에 대해 아무것도 듣기 이전에 복음을 새로운 해석을 통해 전파하였으며, 루터의 저술들은 거의 읽은 적도 없다고 하면서, 자기가 루터란, 즉 루터 주의자라고 불리우는데 대해 큰 불만을 표시하였다. 쯔윙글리는 주장하기를, 자기가 만약 루터에게서 배운 것이 있다면, 쯔윙글리 자신이 이미 옳다고 믿고있던 사실을 실제 행동에 옮길 수있는 용기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하였다. 이로 비추어볼 때 쯔윙글리는 비텐베르그의 종교개혁가 루터의 뒤를 그대로 답습할 의향이 전혀 없었음이 분명하다. 특히 이점은 성만찬이해에서 분명하게 노정되었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11) Lewis W. Spitz, *op. cit.*, p. 156.

성만찬에 관한 쯔윙글리의 견해를 찾을 수 있는 최초의 문헌은 1523년에 쓴 그의 서신이다. 로마카톨릭의 화체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부정적이었다. 즉 그는 로마카톨릭의 화체설은 성경적 기초도 없을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도 없었고 천주교적 창작이라하여 거부하였다.

사실 화체설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스데반(Stephan of Antum. 1139)인데 그는 예전중에 있는 물질, 곧, 떡과 포도주는 형, 색, 맛에 있어서 그대로 존재하나 그 본체(Substances)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참 몸과 피로 바뀐다는 것이다. 이 교리가 카톨릭 교리에 채용된것은 제4라테란회의 (The fourth Lateran Council of 1215) 에서 이노센트 3세 (Innocent Ⅲ) 교황으로 말미암았으며 1545년 트렌트회의에서 재확인되었던 것이다. 어떻든 쯔윙글리의 성 만찬교리는 1523년 후반에서 비로소 알려지게되었고, 그때로부터 루터와의 논쟁을 통해 점차 확고한 신념으로 굳어갔던 것이다.

그는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는 주님의 성만찬 제정의 말씀들 중에 est 라는 말은 윤리적—비유적(typolgisch)인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의미를 취하게된 중심계기는 로마카톨릭이 '미사 희생제' (Mass offer) 즉 미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희생이 반복한다고 하는 교리를 대항하려는 의도였다.

쯔윙글리는 로마카톨릭의 견해에 반대하여 성찬은 그리스도의 수난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가졌던 것이다 또 그는 요한복음 6 : 63 절의 육은 무익하니라' 는 말씀에 근거하여 어거스틴과 초기 스콜라주의자들 처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의 존재를 지역적인 것으로 생각함으로써 성만찬에서의 그리스도의 육체적 임재를 배격하였다.[12]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성만찬 제정의 말씀들을 순전히 상징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지 않을수 없었다 즉 쯔윙글리는 성만찬만이 이에 참여

12) Reinhold Seeberg, *op. cit.*, p. 440.

하는 신자들에게 이미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확인하는 증거로서 의미가 있을 뿐이라고 믿었다. 빵과 포도주는 오직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에 불과하였으며, 그리스도는 이 지구상이 아니라 천상에 구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좌정하고 계신다고 하였다. 따라서,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나누신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주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데 의미를 찾는 것이라 하였다.

쯔윙글리가 이처럼 성찬을 단순히 기념으로 받아드리게 된것은 앞서 언급했던 코넬리우스 호니우스의 영향이 적지않았다. 즉 호니우스는 1523년 헤이그에서 쯔윙글리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이것은 나의 몸이라' 라는 구절은 하나의 수사법 혹은 문학적 표현 양식이므로, 이 구절은 '이것은 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는 의미로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호니우스는 '우리는 입으로 받아들이는 빵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라고 기록하였다. 쯔빙글리는 호니우스의 해석에 큰 감명을 받았으며, 이 해석을 가리켜 어려운 난제를 명백하게 꿰뚫어 볼수있게 해준 '값진 진주' 라고 극찬하였다.[13] 물론 이러한 해석은 상당히 합리적인 견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해석은 성경신학의 다른 측면들과 무리없는 조화를 이룰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의문시되는 숙제라고 하겠다. 쯔윙글리는 처음부터 그의 사상이 루터의 사상의 틀에서 벗어났다고 자각했었는데 이 점에서 더욱 분명했다. 쯔윙글리는 아주 빨리 루터의 견해를 공박할 결심을 했고, 1525년 부터 그의 사상을 남부 독일인에게 확산 시키기 위해서 세밀한 계획을 세웠고 강력한 논조의 선언문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렇게하여 쯔윙글리는 루터의 사상을 공격하고 그 권위를 약화시

13) Lewis W. Spitz, *op. cit.*, p. 157.

키려는 일련의 정략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갔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바젤의 개혁자였던 외콜람파디우스 (Johannes Oecolampadius, 1482-1531)는 「De genuina verdorum christi … expositione liber」(1525)을 써서 쯔윙글리의 견해에 동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후론 하겠거니와 루터가 마침내 침묵을 깨고 쯔윙글리를 향한 논쟁의 포문을 열었을때 지나칠 정도의 통열함을 이해할수 있는 것이다.

1529년 말경 쯔윙글리는 독자적인 성찬론을 서술하였다. 그 요점은 미사 희생제관을 배격하는 것과, 'est'를 'Significat'로 설명하는 것과 요한복음 6장을 만찬의 영적 음식의 의미로 입증하는 증빙전으로 삼은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므로 육체적 임재를 할 수 없다는 것 들이다.[14]

이상에서 살펴본 바대로 루터는 성만찬에서의 그리스도의 몸의 임재를 가르쳤으며, 그리고 몸이 신앙에 의해 전유(傳有)하게 된 성만찬과, 말씀에 의하여 성취된 죄사함의 봉인으로서 성찬참예자를 강하게 하며 확신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성만찬제정 말씀들 가운데 τοῦτο (이것은) 를 잘못 해석한 칼쉬탓트(Carlstadt)의 이론이나, est를 Significat로 해석한 쯔윙글리의 이론이나est를 그리스도의 몸의 표징으로 설명한 외콜람파디우스의 이론등은 모두 루터의 견해와 다른 것이다.

2. 성만찬 논쟁의 과정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debate)

14) J. L. 니이브, 기독교 교리사 서남동 譯(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78), pp. 368-382 참고. 여기서는 쯔윙글리의 신학전반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 루터와 쯔윙글리간의 성만찬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발전되어 갔는가? 바로 이런점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해 보는 일은 두사람 사이의 성만찬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루터와 쯔윙글리의 성찬교리에 관한 의견대립의 발단은 이미 1519년 부터라고 함이 타당할 것이다.[15]

1519년 부터 루터의 견해가 그의 신학적 발전과 함께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의 강조점은 성만찬에서 역사적 예수의 실제적 임재였다.

루터는 호니우스(C. Honius)가 말한 'Hoc est corpus meum' 의 'est'를 'Significat' 곧 그리스도의 몸의 상징으로 검토했으나 두가지 점에서 인정할 수 없었다. 첫째는 주석적(exegetical)입장에서 였고 둘째는 그의 기독론에서 였다. 이런 루터의 사상은 1526, 1527, 1528년에 나타난 그의 신학논문에 분명히 나타난다. 결국 견해를 달리하는 두사람의 논쟁을 측근의 친구들만이 아니라 남부독일, 스위스와 근접한 유럽지역에 파급되었다. 쯔윙글리는 외콜람파디우스의 동의를 얻고, 루터는 복음주의 선제후들과 뉘른베르그(nürnberg)의 오시안더(A. Osiander, 1498~1552)등의 지지를 받았다.

쯔윙글리는 로마카톨릭 교회로 부터 이탈하는데 있어서 교리적 문제에 철저하였다. 1523년 쯔윙글리는 쥬리히의 목사로 있는 동안 미사를 폐지하고 제단을 없애 버리고 성상을 파괴하였다.

루터는 쯔윙글리의 반론에 자극을 받아 1524년 그의 성찬론을 써서 스트라스빅그(Strasberg) 신학자들에게 보냈다. 루터는 그의 설교 가운데서도 '이것은 내몸이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료한 것이므로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15) W. Cunningham, *The Reformers and the Theology of the Reformation*, p. 216 참고.

여기서 루터는 그리스도의 편재성과 관련시켜 그릇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은 그의 편재성을 가르친 것인데, 어떤 장소에나 물건 가운데도 계신 점을 말한다고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으로 자연가운데 계시며 동시에 분리할 수 없는 신성과 인성의 양성을 구비하고 계신다고 강조하였다.

루터와 쯔윙글리의 두 개혁자는 한 이론을 변호하고 다른 이론을 배격하면서 논쟁이 불붙기 시작하였다. 이때가 1524년 말이었다. 쯔윙글리는 1525년 '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에 대한 강해' (The Commentary on true and false Religion)에서 천주교의 화체설과 루터의 성찬론 양자를 비판하였다. 반면 루터는 쯔윙글리파의 상징적 설명을 반박하고 현실 임재설 (곧 공재설)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1525년 부터 양측은 토론과 문서교환이 시작됐다. 쯔윙글리의 견해에 대한 루터의 비판에 대해 바젤의 외콜람파디우스는 동년 9월에 '이것은 나의 몸이다는 주의 말씀의 올바른 해석' (True and Real Explanation of the words of the Lord, 'This is my body') 를 써서 쯔윙글리 견해를 후원했다. 1526년에 쯔윙글리는 독일어로 '성찬에 관한 명확한 해설'이다는 논문을 발표하여 '이것은 내몸이다' (This is my body)라는 말은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니'로 해석하고 루터 견해를 비판했다. 그는 1526년에는 루터의 글 '급진파들에 대항하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례에 관한 설교' (Sermmons on the Sacrament of the Body and Blood of christ Against the Radicals)를 비판했다.

1527년 루터는 다시 격렬한 논쟁적인 글로 즉각 대응했다. 쯔윙글리가 1527년 '우정어린 주석' (Friendly Exposition)에서 현실임재설을 반박하고 나오자 동년 루터는 "'이것은 내몸이다'는 말씀은 여전히 급진파들에 대적하고 있다" (That these words 'This is my Body' still stand against the Rodicals)를 4월에 발표하였다. 쯔윙글리는 그해 6월 여기에 대항하여 「"이것은 나의 몸이다"는 말씀에는 본래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That these Words "This is my body" Retain their original meaning, 1527)는 논문으로 대응하였다.

1528년 3월 다시 루터는 쯔윙글리에 대항하여 '주의 만찬에 대한 고백' (Confession concerning the Lord's Supper)을 써서 반박하고 바울이 썼던 '이단들'이란 용어를 채용했다.

이것은 루터의 가장 중요한 성찬에 대한 논문이며 문서를 통한 논쟁의 마지막 작품이 되었다. 쯔윙글리는 이 글에 대하여 심히 분개하고 자기가 마치 바보처럼 취급받는 일은 견딜수 없는 모욕이라고 선언하였다. 스트라스버어그 개혁자였던 부체르(Martin Bucer) 는 루터의 이 논문을 읽고 크게 감명 받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루터가 실재적임재 (real presence)란 말을 할때 그것은 외부적인것, 곧 그리스도의 육체적임재(Bodily presence)를 의미하지 않고 성례전적 연합(Sacramental Union)을 의미한다고 이해했기 때문이다.[16] 그래서 부체르는 '성만찬에 관한 루터와 그의 대적자들의 입장을 비교' (Comparison of the position of Luther and oppanents concerning the Lord's supper)를 써서 루터파와 쯔윙글리파의 입장을 중재해 보려는 노력을 시도했던 것이다. 헤세의 필립공도 이점에 있어서 동일한 생각이었다.

루터와 쯔윙글리의 논쟁의 요지는 '그리스도의 몸의 편재성' (Omnipresence the body of Christ)과 '그리스도의 신 · 인성의 관계' (Relation of Christ's divine and human natures)의 문제온다. 쯔윙글리는 성만찬말씀은 오직 신성을 언급할 뿐이라고 본것이였다.

16) Harold J. Grimm, *The Reformation Era, 1500-1650*, p. 159.

3. 마부르그 논쟁 (Mardurg Colloqay, 1529. 19. 1~3)

성만찬 논쟁의 절정은 종교개혁사상 유명한 사건이 된 마부르그 논쟁을 통해 제기 되었다.

1529년 3월 15일 제2회 스파이엘회의가 개최되어 교황교회측 제후가 대다수를 점경한 바 이들은 웜스 제국회의의 칙령을 강화할 것과 로마교회식의 미사를 집행할 것과 사제들에 의한 수입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루터파, 쯔윙글리파 및 제세례파의 타파등을 결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5명의 복음주의를 지지하는 제후가 4월 19일 항의(protest)하였다. 이것이 역사적 계기가 되어 항의자들, 곧 프로테스탄트(protestant)라는 말이 복음주의적 종교개혁사상을 따르는 무리를 로마카톨릭 교도와 구별하여 칭하는 용어가 된 것이다.

이로부터 날이 감에따라 복음주의 운동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로마카톨릭의 정치적·군사적공세에 대항하지 않을수 없게 되어 공수동맹(攻守同盟)의 체결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독일을 중심한 루터파와 스위스의 쯔윙글리파간의 협력관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복음에 대한 정의, 곧 신학입장의 일치가 우선시 되었다. 그리하여 필립공(Philip of Hesse)은 쯔윙글리에게 루터와의 신학적인 토의를 제안하였다. 필립은 신앙 양심에서부터 나온 결심이지만 한편 쯔윙글리와 협조하여 황제와 함스부룩왕가를 대항할 세력유지를 위하여서도 신교의 통일을 필요로 하였다.

쯔윙글리는 이 제안을 승락하였다. 그러나 필립이 루터와 교섭했을때 루터는 반대하였다. 사실 루터는 신앙문제에 있어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이러한 필립공의 정치·군사적 동기를 반대했던 것이다. 멜랑히톤도 이 점에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17]

그러나 필립의 초청장이 전달되었을때는 모두 응하여 9월 29일 쯔

윙글리와 외콜람파디우스는 스위스 교회를 대표하여 마부르그성에 도착하였고 다음날(30일) 부체르(M. Bucer), 카스파르 헤디오(Caspar Hedio), 야곱 슈트롬(Jacob Sturm)이 스트라부르그를 대표하여 마부르그에 도착하였고, 루터, 멜랑히톤이 유스투스 요나스(Justus Jonas), 카스파르 크루카거 (Caspar Cruciqer), 요하네스 브렌즈(Johannes Brene) 등과 함께 비텐베르그를 대표하여 도착하였다. 이렇게되어 회담은 1529년 10월 1일부터 3일까지 계속되었다.

1. 마부르그 논쟁

10월 1일 처음 회담이 열렸다. 이것은 비공식 준비회의로써 두반으로 나누어 회담하였다. 즉 쯔윙글리는 멜랑히톤과 회담하였고, 루터는 외콜람파디우스와 회담하였다. 부체르에 의하면 루터와 쯔윙글리의 성경은 혈기가 많다(hottempered) 극단적인 대립을 피하기 위해 루터와 쯔윙글리를 직접 대결시키지 않았다고 한다.[18]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전반부는 전혀 문헌이 없다. 또 루터와 외콜람파디우스 논쟁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쯔윙글리와 멜랑히톤 회담에서는 7시간 동안의 토론끝에 삼위일체론, 기독론, 원죄등에 관한 견해등 성찬을 제외한 대부분에 있어서 일치를 보게 되었다.

그 다음날 10월 2일(토요일) 오전 6시 공식회의가 열렸다. 쯔윙글리는 본 회담은 공개해야 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루터는 이에대하여 반대 하였다. 마부르그의 선제후는 저명한 신학자와 교관들만 참

17) *Ibid.*

18) Grisar Hartmann, *Martin Luther: Itis Word and Life* (London: 1930)에 의하면 여기에 대한 기본적 사료는 3가지가 있는데, T. M. Bucer의 기록, L. Elector John의 기록(그해 10월에 쓴글), C. Saxony의 Duke Henry의 기록이 그것이다.

석할 것을 허락하였다. 이날은 헤세의 필립공의 연설에 이어서 다시 토론이 시작되었는데, 성만찬 말씀의 해석문제에 집중되었다. 먼저 루터가 입을 열었다.

>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만 됩니다. 그 말씀이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현존치 않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당신은 실제로 증명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물리적인 증명이나 기하학적 논리는 타당하지 않읍니다. 예를들어 탑은 문 구멍으로 통과할 수 없다는 이론과 같은 것은 배제합니다. 하나님은 수학 위에 계시며, 그의 말씀은 두려움과 떨림으로만 우러러 볼 수 있고 또한 복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19]

이래서 루터는 두 물체는 한 장소에 동시에 공존할 수 없다는 수학의 원칙은 여기에 적용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수학자를 초월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라는 귀절을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믿기를 요구하는 불변한 증거라고 주장한 것이다. 루터는 성찬식에 상징적 성격이 있다는 것과 영적 의미의 먹고 마심을 전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이와 동시에 그리스도의 실제적 임재를 주장하였는데 쯔윙글리는 이에 동조할 수없었다.

한 회기가 끝난 후 루터는 성만찬에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문서(a formula)를 작성하였는데, 그 골자는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속에 질적으로, 양적으로, 혹은 국부적으로" (qualitatively, quantitatively, or locally)는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실체적으로" (essentially and Substantively)임재한다는 것이었다.[20]

19) 지원용, 마틴루터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72), p. 188.

20) M. Bucer와 J. Brenz는 루터가 작성한 이 문서를 만족스럽게 여겼으며, 결국은 이 내용이 1534년의 뷔르템베르크화약(和約, Wütemberg Concord) 과 1536년의 비텐베르그화약(Wittenberg Concord)의 기초가 되었다. Strassbery신학자들은 비텐베르그로 가서 이 문제에 대해 루터와 협의하고 이 화약들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쯔윙글리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왜냐하면 성찬식이 순전히 상징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았고,[21] 만일 루터의 견해를 받아들일 경우 일반신도들이 이 입장을 로마카톨릭적 해석으로 돌아가는 시발점으로 볼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쯔윙글리는 떡과 포도주는 우리를 위한 희생제사이에 드려지는 몸과 피의 표징들로 보고, 이 표징들은 몸과 피가 이렇게 드려진다는 것을 상징하며 우리에게 구속사역을 회상시켜 준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내 몸이다.'의 '이다'는 바로 '상징한다,의 의미로 해석한 것이다. 오직 신앙만이 구원을 이해할 수 있으며 사유(私有)할 수 있다. 그러나 신앙은 영적인 실재들과만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은 먹는다는것이 그몸의 희생제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 확보된 구원에 대한 믿음의 전유(傳有)만을 상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즉 그리스도는 '신앙의 명상을 통해서만'성만찬에 임재 하시지만 '본질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임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쯔윙글리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곧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본문을 변론의 근거로 삼았다.[22] 또 다른 한편, 장소에 대한 그리스도의 몸의 한계

21) 이점에 대해 Lewis W. Spitz는 쯔윙글리가 인물주의자로부터 물질주의적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러한 면에서 볼때 Erasmus가 신교도들에게 미친 가장 큰 피해는 그가 저술한 De libero arbitrio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하여)를 통해 루터에 정면으로 대결한 점이 아니라,암암리에 쯔윙글리에게 비물질주의적 영향을 주입시킴으로서, 신앙적 신비의문제를 탐구하는데 있어서 인문주의자 호니우스의 합리주의적 주장을 보다 쉽게 받아드리도록한 점인지도 모른다" (Spitz, op. cit., p. 161).

22) 그러나 루터는 요한복음 6장이 성만찬문제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현대루터 신학자들도 루터파와 개혁파간의 차이를 말할 때 요한복음 6 : 63절을 들며, 이 본문이 성찬에 관계된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지원용, op. cit., p. 189).

에 우리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게될 것으로 보고, 더우기 성만찬계정을 말씀하실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피는 아직 흘려지지 않았음을 말했다.

쯔윙글리의 기독론은 이점에서 공헌을 하게 된다. 즉 루터가 전통적인 성만찬 교의를 인격적 연합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 반면에 쯔윙글리는 언제나 두 속성들의 관념상의 (추상적인) 차이를 견해도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만찬에 관한 두사람의 견해는 결국 기독론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쯔윙글리는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신 것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의 지상생활의 역사에서의 그의 두 속성들이 세밀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의 신성은 하늘과 땅을 채우고 있지만 그의 인성은 하늘과 특별한 장소에 국한되어 있다고 보아 영화로워진 몸의 편재성을 부정했다.

만일 한 본성이 다른 본성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면, 혹은 한 본성의 속성들이 전체 인격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면 속성의 교류(Communiccatio idiomatum)가 된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그의 인격적 연합체에 관한 쯔윙글리의 사상들은 여기서는 정통적이다.[23] 따라서 성만찬은 쯔윙글리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완성된 구속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기 위하여 계획된 기념식사(a memorial meal)이며, 다른 한편으로 성만찬은 회중의 면전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의무를 떠맡는 것을 나타낸다.

반면에 루터는 스콜라주의적으로 훈련받은 신학자로서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두 본성들이 연합되었으므로 인간 예수는 모든 그의 말씀들과 행위들이 그의 신성의 표현과 기관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인간 예수 속에서 계시된 분을 제외한 어떠한 하나님도 알지 못했다. 하나

23) R. Seeberg. *op. cit.*, p. 443

님은 모든 피조물들 속에 임재하시며 실제적이지만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안에 유형적으로 '거하시므로' (dwell)한 인격이 인간과 신이 된다고 했다.[24] 이러한 사상들이 양성교리의 신조에 의거하여 생각될 때 그 추론은 두 본성들이 절대적으로 분리될 수 없게 연합된 '동일한 하나의 인격' (one single person)이므로[25] 한 본성이 존재하는 곳에는 다른본성도 역시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결론이 될 것이다. 이와같은 기독론적 이해가 성만찬 교리에서도 동일하게 반영된 것이다. 즉 성만찬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몸의 편재(Ubiquity)이론은 그의 기독론에서 연역된 한 논리적 추론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와같은 신학적 견해차이 때문에 어떤 타협이나 합의가 없이 상대편의 주장에 대해 의혹을 가진채 10월 3일 오후 필립공의 간곡한 연설을 끝으로 결렬되고 말았다.

양파는 그날 저녁 다시한번 교리적 일치에 도달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허사였다. 결국 양파는 연합의 실패로 말미암아 상당한 어려움을 감내해야만 했고, 또한 쯔윙글리와의 연합에 실패하였기에 쯔윙글리에 대적한 함스부르가의 카톨릭연합전선에게 루터의 본거지 삭소니(Saxony)지방이 점령당하고, 헤세의 필립이 옥에 갇히게 되는 쓰라림을 맛보게 되었다.

2. 마부르그 협정신조

이상에서 언급한바 처럼 루터파와 쯔윙글리파의 공수(攻守) 동맹은 위한 신학적 견해차의 해소는 토론의 결렬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필립은 공수동맹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양파를 설득시켜서 15개의 신앙조항을 초안시켰다.

양파는 성만찬에 관한 제15항은 일치하지 못하였으나 나머지 14개

24) E. 30, 63,

25) E. 30, 63, 206ff, 211, 222. 206f.

학에는 완전일치 하였다. 그리스도의 육체적 임재에 관해서만 견해를 달리했을 뿐 그들은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믿음, 세례 등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고, 미사제도의 부인 그리고 수찬자에게 빵과 포도주를 함께 줘야 한다는 견해에도 일치하였던 것이다.

이 회담후 양파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기초된 것이 마부르그 협정신조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26]

1. 우리 쌍방은 유일하시고 참되시며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가 하늘과 땅과 그 밖에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신 것을 믿는다. 그는 본질과 본성에 있어서 하나이시며 위(位)에 있어서 세 분(三位)이시다. 즉 니케아 회의와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가 고백하여 온 것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하여 가르친다.

2. 성부나 성령이 아니라 성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본래부터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인간의 생식 과정에 의하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인간으로 나신 것을 우리는 믿는다. 그의 몸과 영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나 그는 죄가 없으시다.

3. 전술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모 마리아의 아들이시며 인격에 있어서 분열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자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어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는 중이시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장차 오실 것이다.

4. 원죄(原罪)는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전하여지고 유전되었는데, 이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받게 된것을 우리는 믿는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명과 죽음을 가지시고 돕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멸망을 면하지 못하였을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허락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5.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원죄와 그 밖에 여러 죄(현행죄)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 받게 된 것을 믿는다. 신앙 이외의 어떤 선행이나 행동이나 직위가 죄의 권세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데 아무 효력을 나타내지 못했다.

26) 지원용, *op. cit.*, pp. 190 – 193.

6. 이와 같은 신앙은 전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선한 봉사나 혹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그런 믿음을 얻을 수 없다. 다만 성령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며 창조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을 들음으로 이 같이 되는 것이다.

7. 이러한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義)가 될 수 있으며, 이 신앙의 연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경건하다 하시며 거룩하다 하시는 것을 믿는다. 신앙은 우리를 죄와 죽음과 지옥에서부터 지키고 은총가운데 인도하며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준다.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과 축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구원을 위하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던 금욕 생활이나 거룩한 서약(誓約) 등은 가증한 것 뿐이다.

8.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거나 듣기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성령께서 신앙을 창조하시지 않으며 또는 신앙을 통하여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 즉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방편을 통하여 그가 원하시는 사람 안에 또는 원하시는 곳에서 신앙을 창조하신다.

9. 세례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례이며 신앙을 돕는 것임을 우리는 믿는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 'Ite, baptisate' (마28 : 19), 약속하신것 — Qui Crediderit' (막16 :16)이 세례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세례는 크리스천의 내용 없는 어떤 상징이나 표어가 아니다. 위것은 우리를 거듭날 수 있게 하며 또는 믿음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표지(標識)이며 역사이시다.

10. 성령으로 창조를 받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시도록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또한 모든 핍박을 감수할 수 있게 한다.

11.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 혹은 목사나 이웃에게 고백이나 의논한다는 것은 강제적이어서는 안되며 자의적(自意的)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이와 같은 고백은 죄로 인하여 놀라움과 고통과 고민을 받으며 또한 과오를 저지른 심정을 위하여 도움이 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사죄의 유일한 복음으로 받는 사죄의 위안이다.

12. 우리는 정부나 국법이나 재판소나 규칙 제도 등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보며 일부의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나 재세례파들이 가르치고 주장하는 것처럼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그리고 크리스천들 가운데 생례로부터 혹은 부모 전래의 직업에 의하여 정부 기관의 공

직(公職)에 있는 사람도 평범한 위치를 가진 일반 사람과 꼭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13.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에 반대되지 않는 한, 유전 또는 사람이 제정해 놓은 어떤 제도나 법칙을 —영적이건 혹은 교회 법칙이건 —그대로 지켜도 좋으며 지키지 아니하여도 가하다고 우리는 믿는다. 이러한 중립적 성질의 인간 제도에 있어서는 형제들의 원하는 바에 맡겨 둘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불필요한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하며 질서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또 승려들의 결혼을 금하는 교리는 마귀의 교리라고 믿는다(딤전4 : 1~2).

14. 성찬에 있어서는 맨 처음에 주님께서 제정하신 데 따라 두 가지가 다 (즉 떡과 잔) 사용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모두 믿는다. 미사는 죽은 자나 산 자를 위하여 사죄를 받는 행사는 결코 아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몸과 참 피의 성례이다. 이 몸과 피의 영적 참여(參與) : manducation) 는 모든 크리스천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이 성례의 용도에 관해서도 우리는 동의한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같이 성찬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제정되었고, 약한 양심을 가진 자들을 성령이 선앙과 사랑 가운데로 옮긴다. 그리스도의 참 살과 피가 떡과 잔 가운데 실제로 현존하는지 안 하는지의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우리들이 아직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들은 양심이 허락하는 한, 크리스천의 사랑으로 상대편을 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참된 교리 가운데 우리들을 굳게 세워 주시기를 우리들 양편은 다 같이 진정으로 간구하는 바이다. 아멘

이상의 14개조의 협의문서에는 양편을 대표하여 10명이 서명하였다.

맺는 말

이상에서 우리는 1529년 10월 마부르그에서 있었던 루터파와 쯔윙글리파간의 논쟁을 중심으로 성찬교리를 논술하여 보았다. 이상에서 양대 종교개혁자의 성찬관은 분명해졌다. 문제의 핵심은 '이것은 내 몸이다' (Hoc est corpus meun)는 말의 문자적 해석(루터)과 상징적 해석(쯔윙글리)간의 차이였던 것이다.

이 해석상의 차이는 저들의 기독론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

비록 1529년의 회담은 결렬되어 양파의 교리적 화해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성만찬 교리의 차이점은 더욱 분명히 제시되어 갔던 것이다.

결국 독일과 스위스 종교개혁간의 차이를 영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이다. 비록 이것이 로마카톨릭이 오랜 세월동안 성만찬을 중요시해 왔던 전통의 힘과,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 진지하게 해석하려는 두 신학자들의 확고한 신념에서 빚어진 결과 이기는 하나, 성만찬 교리 하나 때문에 루터와 쯔윙글리가 각각 입장을 달리하는 교파로 나뉘어진 것은 가슴 아픈 역사의 질곡이 아닐 수 없다. (조교수. 역사신학)

교회문제연구소 編
한국교회의 제문제 (近刊)
부산 : 고신대학출판부, 신국판 반양장 200쪽 내외

홍반식 博士 著
성경의 핵심 교훈
서울 : 교회교육연구원, 1984. 크라운판 양장 262쪽 값 3,500원

李根三 博士 著
개혁주의 신학과 교회 (85. 11 新刊)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신국판 반양장 323쪽 값 4,000원

李保民 博士 著
기독교윤리학의 제문제 (85. 11 新刊)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신국판반양장401쪽 값 5,000원